

향유방식에 근거한 12가사 교수 · 학습 방안

A Study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the Twelve *Gasa* based on Ways of Enjoyment

정은정*

Eunjung Jung

초록 본 연구는 국악의 정가 중 12가사를 향유하던 방식을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제재곡으로 교수 ·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사문학을 향유하던 방식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본래 가사는 세 가지 방식 즉 율독, 음영, 가창 활동이 단계적 또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12가사를 제재곡으로 음악과에서 교수 ·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요소 및 학습활동을 추출하였다. 12가사는 율독-음영-가창의 단계에 따라 문학 및 음악적 가치와 특징을 바탕으로 교수 · 학습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고, 악곡 <백구사>를 통하여 그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주제어: 12가사, 율독, 음영, 가창, 백구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the Twelve *Gasa* of classical vocal music of Korea as song materials in the music class based on the traditional way they were enjoyed. To this end, the way *Gasa* literature had been enjoyed was examined.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original *Gasa* should be performed in three ways, the activities of metrical reading(*yulbok*), reciting(*eumyeong*), and singing, either organically or in stages. Based on this, learning elements and learning activities were extracted so that the Twelve *Gasa* could be taught and learned as song materials in the music class. It was seen that the Twelve *Gasa* could be taught and learned based on literary and mus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tages of metrical reading-reciting-singing, and the method could be embodied through <*Baekgusa*>.

Key words: the twelve *Gasa*, metrical reading(*yulbok*), reciting(*eumyeong*), singing, *Baekgus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primaj@naver.com

Pohang High School, 50, Aho-ro,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Korea

I. 서론

가곡, 가요, 오페라 따위로 불릴 것을 전제로 쓴 글을 가사(歌詞: lyrics)라고 한다. 우리말로로는 노랫말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성악 장르 중에 정가(正歌: classical vocal music of Korea)는 가곡(歌曲, *Gagok*) · 가사(歌詞, *Gasa*) · 시조(時調, *Sijo*)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중 가사는 긴 노랫말을 일정한 선율과 장단의 틀에 맞추어 부르는 성악 장르이다. 또한 문학에서 가사(歌辭, *Gasa*)는 고려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4음보 율격의 고전시가 양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본래 사(辭: message)와 사(詞: word)를 거의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가사(歌辭)’와 ‘가사(歌詞)’를 혼용해왔다. 즉 가사는 본래 메시지라는 뜻이고, 이 메시지가 향유방식에 따라 문학이 되고 그 자체가 가창곡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우리나라의 노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나라는 자국어가 주는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시를 삼고 노래를 불렀다. 시를 낭독할 때는 낭독의 방식 즉 리듬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것은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자질과 관련이 있으며(Kim, 2000, p. 274), 시를 향유하는 다양한 방식과 연결된다.

한편, 우리나라 문학에서 가사를 향유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가창곡 즉 음악으로 남아있는 가사는 현재 총 12곡이며 이를 전창가사 또는 가창가사 혹은 12가사라고 한다. <춘면곡(春眠曲, Chunmyeongok)>, <백구사(白鷗詞, Baekgusa)>, <황계사(黃鷄寺, Hwanggesa)>, <죽지사(竹枝詞, Jukjisa)>, <양양가(襄陽歌, Yangyangga)>, <어부사(漁父詞, Eobusa)>, <길군악(길軍樂, Gilgunak)>, <상사별곡(上思別曲, Sangsabyeolgok)>, <권주가(勸酒歌, Gwunjuga)>, <수양산가(首陽山歌, Suyangsanga)>, <처사가(處士歌, Cheosaga)>, <매화가(梅花歌, Maehwaga)>가 그것이다. 이 악곡들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1971.01.08.)되었지만, 현재 전승 및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2016.08.29.)되어 있다.

학교 음악교육에서 가사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나타났다(Yoon, 2011, p. 31).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9종 『음악』 교과서 중 3종(Jeong, Cheon, & Kim, 1995; Kim & Lee, 1995; Sin & Kang, 1995)에는 가사 <백구사>를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에도 고등학교 8종 중 총 4종의 교과서(Jeong & Heo, 2001; Baek et al., 2001; Yoon & Moon, 2001; Go & Hong, 2001)가 가사 <어부사>와 <백구사>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중 가사를 제재곡으로 수록한 교과서는 없다. 대부분의 음악 교과서는 아래와 같이 가사를 조선시대 선비층이 향유하던 성악

장르로 소개하지만 제재곡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가사는 가사체의 긴 노랫말을 일정한 장단에 의해 노래하는 전통 성악곡이다. 현재 12곡만이 전해지고 있다. 가사 <백구사>를 감상하고 음악과 문학과의 관련성을 설명해보자(Choe et al., 2018. p. 103).

조선후기에는 사대부와 중인 계층의 음악 애호가들에 의해 풍류음악이 발달하여 영산회상, 가곡, 가사, 시조 음악 등이 연주되었다(Go et al., 2018. p. 103).

문학계는 일찍부터 가사의 양식 및 문학교육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를 해왔다. 국악계에서도 12가사의 악곡 형성과 특징을 분석한 연구(Kim, 2006a; Kim, 2006b; Sung, 2002), 악조나 창법에 관한 연구(Choi, 2006; Moon, 1997; Lim, 2013, 2014a, 2014b, 2015)가 나타났으며, 학교 음악교육을 위해 가사의 교수·학습법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Kim, 2005; Yim, 2011; Kang, 201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의 목표를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을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 4). 이를 위해 감상 영역에서는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화 영역에서는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학습하도록 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p. 15-16).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은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해왔으며 현재까지도 향유하고 살아 있는 문화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보존하고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익혀서 그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가사가 문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음악의 한 장르이며, 조선후기 널리 향유한 성악곡이자 현재까지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불려지고 있는 노래라는 자부심은 실제 학습을 통해서만 길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 교과서에는 가사를 제재곡으로 다루지 않으며 현장에서도 학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시조나 가곡은 3장 6구 4음보라는 고정된 노랫말에 정형화된 가락을 얹어 부르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가사는 노랫말이 매우 길고 음악적 구조도 가곡이나 시조보다 다양화되어 악곡의 정형적인 특징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2가사는 한자로 된 시에 토를 달아 노랫말을 만든 노래, 가사 계열의 노래, 고려가요 또는 잡가와 비슷한 노래가 두루 섞여 있다. 음악면에서도 6박 장단의 노래와 5박 장단의 노래, 무장단의 노래

등이 나타나고, 4도 상행하여 종지하는 노래, 4도 하행하여 종지하는 노래, 순차적으로 종지하는 노래 등이 혼재한다. 시김새가 붙는 모양도 달라 한가지 특징만으로 가사를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12가사는 하나의 장르로 묶여 있지만 사실과 음악적 특징이 통일적이지 않아 이를 제재곡으로 교수·학습하고자 할 때는 가사의 본래 성격에 맞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그것이 향유하던 방식과 본질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2가사를 음악 교과에서 제재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사의 향유방식에 관하여 이론적 근거를 찾고,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의 단계를 정하겠다. 그러한 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조직하고 구체적인 제재곡으로 구현하겠다. 본 연구가 문학·음악적 가치에 기반하여 학습 요소를 추출하지만, 음악과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의 유래와 향유방식

1) 가사의 유래

가사의 발생과 변화과정에 관하여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가사가 본격적인 문학 양식으로 성장한 시기는 조선시대 성종(1469~1494) 이후 또는 임진왜란 전으로 본다(Moon, 2008, p. 40). 이 시기 우리나라는 성리학 이론이 체계화되고, 유교적 사상에 의해 사회 질서가 자리를 잡았으며,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사대부들은 강호와 자연에 비추어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하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 가사를 가사 형식의 전형으로 삼는데, 4·4조 4음보의 안정된 율격을 지키고 있으며 문장을 맺는 결구는 시조의 종장 형식으로 마감한다. 이같은 가사 형식은 가창(歌唱: singing), 음영(吟詠: reciting), 율독(律讀 또는 완독(玩讀): metrical reading)이라는 향유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대부가사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Ryoo, 2016, p. 184). 더불어 초기 가사는 가창을 위한 문학이었으며, 가사 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 ~ ?)의 <사미인곡>·<속미인곡>이 가창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가사는 분화되어 4음보 율격을 이탈하거나, 율격이 주는 리듬보다 내용 전달

에 관심이 높아지고, 가창보다는 읽고 읊조리는 향유방식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독립신문』 등에 실린 개화가사를 살펴보면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문학장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창되는 12가사는 <어부사>를 제외하고는 노랫말의 지은이나 악곡이 만들어진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대부분 19세기나 20세기 무렵에 채보되었다. 현행 12가사는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 아악생들에 의해 전승된 것이다.

가사의 효시로 알려진 <어부가>는 조선중기 『악장가사』에 노랫말이 실려있고, 『육당본청구영언(1852)』에는 <권주가>, <길군악>, <매화가>, <백구사>, <상사별곡>, <양양가>, <어부사>, <처사가>, <춘면곡>, <황계사> 등 10곡의 노랫말이, 『남훈태평가(1863)』에는 <백구사>, <매화가>, <상사별곡>, <처사가>, <춘면곡>의 노랫말이 남아 있다. 옛 거문고 악보집 『삼죽금보(1841)』에는 <권주가>, <길군악>, <매화곡>, <상사별곡>, <춘면곡>, <황계사>의 거문고 육보(肉譜: oral mnemonics)가 전한다.

이처럼 가사는 조선시대부터 연행해왔고 가창한 장르였으며, 다양한 가집과 악보로 남아 12가사로 정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었으므로 음악사적인 측면에서도 교육할 가치가 높다.

2) 12가사의 향유방식

가사의 향유방식에는 가창, 음영, 율독 세 가지 방식이 있었으며,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Lee, 1977, pp. 13-40; Yim, 2013, p. 19). 가창, 음영, 율독은 노래하기, 읊기, 읽기를 말한다. 이 세 가지는 고전시가를 향유하는 기본 방식이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사실과 그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 경전 『서경(書經)』 「순전(舜典)」 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Yim, 2013, p. 22).

시는 마음속에 있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뽑아 읊조리는 것이며, 소리는 길게 뽑아 억양을 붙이는 것이고, 음률은 소리가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이를 쉽게 풀이해보면, 시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그 말을 길게 읊은 것이며, 악(聲)은 가락(律)을 따른 것이다. 실로 시에서 시작해서 악에 이르는 과정이 단계적이다. 즉 뜻을 말하는 것으로 시를 삼고, 시에 장단과 음을 붙여 길게 읊조리면 노래가

되며, 그 노래에 가락을 붙이고 반주를 얹으면 음악이 된다는 말이다.

퇴계 이황(1501~1570)은 연시조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지은 이유를 다음과 같은 발문으로 밝힌다(Yim, 2013, p. 25).

오늘날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 읊조릴 수는 있으나 노래할 수는 없다. 만약 시를 노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말로 지어야 하니, 대개 우리나라 음악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所不得不然也.)

그는 한시와 국문시가의 차이를 영(詠)과 가(歌)의 향유방식으로 구분했다. ‘영’은 읊조리는 것이고 ‘가’는 노래하는 것인데, 한시는 읊조릴 수는 있으나 노래할 수는 없으므로, 시를 가창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지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시를 읊조릴 수 있다고 해서 모두 가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후기 가객 김천택(? ~ ?)이 엮은 가집 『청구영언』에 정래교(1681~1759)가 쓴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National Hangeul Museum, 2017, p. 89).

옛날의 노래는 반드시 시를 사용하였다.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글로 쓰면 시가 되고, 시를 관현악으로 연주하면 노래가 된다. 노래와 시는 실로 같은 이치이다. (古之歌者必用詩. 歌而文之者爲詩, 詩而被之管絃者爲歌, 歌與詩固一道也.)

노래와 시의 이치는 같지만, 시를 관현악으로 연주하여야 비로서 노래가 된다는 뜻이다. 시를 읊기만 하였을 때는 글이지만, 가락을 붙이고 악기로 반주하게 되면 노래가 된다.

이처럼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시의 향유방법을 종합해보면, 율독·음영·가창을 구분해왔고, 율독-음영-가창의 단계에 따라 문학에서 음악이 된다. 가창은 반주와 곡조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방식이며, 음영은 반주와 곡조 없이 단순한 장단이나 가락을 반복하며 읊는 방식이고, 율독은 가락도 없이 율격의 리듬에 의존하여 읽는 방식이다. 가창에서 악기 반주와 곡조가 빠지면 단순한 장단이나 가락만 남아 음영이 되고, 음영에서 단순한 가락마저 빠지면 율격 리듬만 남아 율독이 된다. 가창의 선율은 음높이가 고정되어 있고 시김새를 살려야 하는 데 반해, 음영의 선율은 골격음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읊는 것으로서 향유자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록 율독·음영·가창이 고전시가의 공통적인 향유방법이라고는 하나 율독·음

영·가창을 모두 활용하여 향유한 장르는 가사이다. 시조의 경우 음악성을 가지는 형식과 실현되는 정체성을 볼 때 율독이나 음영보다는 가창의 장르로 인식해야하고 (Cha, 2009, p. 45), 한시는 운율을 넣어 읽지만 음영하거나 가창할 수는 없다. 가사는 본질적으로 가창과 율독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음영이라는 제시양식을 잘 드러내 주는 장르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12가사를 제재곡으로 교수·학습하고자 할 때, 노랫말을 읽고, 간단한 가락이나 장단을 붙여 읊조리고, 정해진 곡조와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활동을 단계와 순서대로 적용한다면 가사가 본래 쓰이고 향유한 방식 그대로 학습활동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A step-by-step singing guide based on the *Gasa's* enjoyment method

1step		2step		3step
Metrical reading		Reciting		Singing
• Correct metrical reading • Metrical reading while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lyrics	⇒	• Reciting to <i>Jangdan</i> (rhythmic pattern) • Reciting in keytones (skeletal notes)	⇒	• Singing in tune • Sing to <i>Jangdan</i> (rhythmic pattern) • Sing a song with the <i>Sigimsae</i> (musical ornaments)

가사를 학습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율독’이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율격적 요소 위에 만들어진 시가이다. 따라서 율격에 맞추어 시를 읽는 활동은 음영과 가창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가창곡의 노랫말이 가사와 같이 4·4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율독의 단계에서는 가사의 긴 노랫말로부터 이 율격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다른 교과 즉 문학과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의 활동은 ‘음영’이다. 가사는 율독과 가창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율격으로 음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시양식으로 음영이 가능하다(Jeong, 1988, p. 191). 즉 음영은 율격적 리듬 읽기를 선수학습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율독을 통하여 율격을 파악하였다면, 음영에서는 이러한 율격이 음악 요소인 장단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영의 단계에서는 음의 길고 짧음의 말붙임새를 익혀 읊조리고, 골격음에 따라 음의 높낮이를 붙여 음송한다. 마지막으로 가사를 향유하는 방식은 ‘가창’이다. 음영의 단계에서는 시가 음악이 되어가는 중간과정으로서 장단과 골격음을 익혔다면, 가창의 단계에서는 정확한 음높이에 맞추어 시김새를 살려 노래한다. 음영은 2~3개의 단순한 음을 가지고 시를 읊조리지만, 이후 본래의 음높이와 길이에 맞게 가창해보면 음영에

서 사용한 골격음들로부터 어떻게 가락이 만들어지고 곡조가 완성되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렇듯 율독·음영·가창은 그 방식이 연계적이며 단계적이다. 대부분의 가창곡은 리듬과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은 방식과 단계로 노래한다. 그러나 가사는 율격의 바탕 위에 음영을 할 수 있어서, 문학적 요소에 해당하는 율격이 음악적 요소 즉 장단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파악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음영의 바탕 위에 가창해보면 읊조리기 위해 사용했던 단순한 음이 어떻게 가락으로 만들어지고 곡조가 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가사가 만들어지고 향유하던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이며, 곧 음악적 제재곡으로서 교수·학습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2. 가사의 문학·음악적 특징

1) 문학적 특징

12가사에 속한 작품들은 노랫말의 특징에 따라 다음 <Table 2>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Yim, 2013, p. 258).

<Table 2> Twelve Gasa's lyrics characteristics

Language	Style	Song
Korean	Gasa(歌辭)	<Chunmyeongok>, <Cheosaga>, <Sangsabyeolgok>
	Goryeogayo(高麗歌謠)	<Baekgusa>, <Hwanggesa>, <Gilgunak>, <Gwunjuga>, <Jukjisa>, <Suyangsanga>, <Maehwaga>
Punctuated Chinese(漢文懸吐)		<Yangyangga>, <Eobusa>

<춘면곡>, <처사가>, <상사별곡>은 가사체 노랫말이므로 4음보의 율격이 노랫말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는 악곡이다. <백구사>, <황계사>,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매화가>는 고려가요와 유사하게 후렴이 나타나거나 여음(餘音: the part that only plays instruments)을 기준으로 절이 나뉜다. 학자에 따라서 잡가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양양가>와 <어부사>는 한시에 토만 붙여서 4음보로 만든 것이다. 12가사는 가사체(歌辭體: a style close to prose)의 노랫말을 바탕으로 일정한 장단에 얹어 부르는 공통점을 지닌 장르이다. 노랫말의 특징이 고려가요를 닮았거나 한문현토체라고 할지라도 4보격의 음보 안에 정해진 장단으로 노래하는 긴 사설의 노래임은 틀림없다. 악곡을 율독할 때, 4음보가 잘 느껴지는 제재곡은 율격의 리듬을 저절

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노랫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울격을 이탈하면서 생기는 리듬의 변화를 느끼며 학습활동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가사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개별 악곡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Characteristics and themes of lyrics by song(National Gugak Center, 2018, pp. 17~18)

Song	Themes of the lyrics
<Chunmyeongok>	Song of <i>spring sleep</i> is a piece in which one can feel frankness oh outspoken expressions. It conveys the heart of a man who is afflicted with a wound of parting.
<Baekgusa>	Song of the <i>seagull</i> , a leisurely song about one who left government service to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spring, conveys the qualities of a virtuous man.
<Hwanggesa>	Song of <i>yellow rooster</i> is a song that contrasts its stimulating refrain full of <i>heung</i> (興, excitement) with its verses, which express <i>han</i> (恨, sorrow). It is the song of the heart of the woman who wishes for the lover who has left her to return.
<Jukjisa>	Song of the <i>bamboo</i> , branches has a clean and feeling. It is about local landscape and customs.
<Yangyangga>	Song of <i>Yangyang</i> uses an absence of falsetto to create a plain background against which many ornaments create a colorful sound. The content is more or less belonging to the Chinese Tang poet <i>Li Bo</i> .
<Eobusa>	In <i>fisherman's song</i> , one can sense the enjoyment of fisherman's repose. In this <i>Gasa</i> , The liberty and the leisurely sensibility of the literati class(<i>seonbi</i> in Korea)-someone who is free from constraints of authority-is projected onto the fisherman.
<Gilgunak>	<i>Marching song</i> shares many of the attributes of a folk song. It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women, indirectly comparing the losing a partner to an old pine tree.
<Sangsabyeolgok>	Song of <i>longing</i> is a song of longing for the lover who has gone.
<Gwunjuga>	Using a free rhythm, <i>drinking song</i> is a about the vanity of life, filial duty, and health, and in the end, recommends drinking.
<Suyangsanga>	Song of <i>Mt. Suyang</i> progresses in leaps, projecting an elegant and lively atmosphere. It also conveys a sense of frustration experienced by one expecting to drink while moon gazing when it became obscured by unexpected weather.
<Cheosaga>	Song of <i>retired scholar</i> expresses the emotions of the one who lives in harmony with nature.
<Maehwaga>	Song of <i>blossoms</i> is a song about the love between a man and woman.

가사가 본래 사대부들이 널리 부르던 성악 장르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분화되어 부녀자, 승려, 서민 등 폭넓은 작자층이 누린 장르이기 때문에 노랫말은 다양한 주제

를 담고 있다. 12가사의 <백구사>, <죽지사>, <양양가>는 군자의 풍도를 느낄 수 있는 노래이며, <어부사>, <처사가>는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풍류가 담겨있다. <길군악>, <황계사>, <춘면곡>, <상사별곡>, <매화가>는 남녀 간의 감정이나 이별을 담은 노래이다. 이처럼 노랫말의 주제와 뜻을 밝히는 것은 율독 즉 읽기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12가사의 노랫말이 우리말로 쓰였다 할지라도 한자어나 고어로 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뜻을 풀이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가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학습활동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 정서를 체험하고, 작품 속 화자의 심정을 상상하며 학생 자신의 정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가사를 향유하던 당시 사회를 상상할 수 있으며, 가치관과 일상적인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작품이 만들어진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의 삶을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할 것이다.

2) 음악적 특징

12가사가 불규칙한 긴 노랫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악적 구성도 불규칙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승 계보에 따라 음악 구조도 조금씩 다르다. 다음 <Table 4>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예능보유자인 이양교(1928~2019)에 의해 전승된 12가사를 악곡별 음계·장단·종지·짜임새로 정리(Moon & Kim, 2008, pp. 60-82)한 것이다.

<Table 4> Musical characteristics by song

Song	Scale	Jangdan	Cadance	Organization
<Chunmyeongok>	Hwang, Tae, Joong, Im, Nam, Mu	6-beat	Four-note up	Verse 8
<Baekgusa>	Hwang, Tae, Joong, Im, Nam	6-beat	Four-note down	Verse 8
<Hwanggesa>	Hwang, Tae, Joong, Im, Nam	6-beat	Four-note down	Verse 8
<Jukjisa>	Hwang, Tae, Joong, Im, Nam	6-beat	Four-note down	Verse 4
<Yangyangga>	Hwang, Tae, Joong, Im, Mu	5-beat	Four-note down	Verse 10
<Eobusa>	Hwang, Tae, Joong, Im, Mu	6-beat	Four-note up	Verse 8
<Gilgunak>	Hwang, Tae, Joong, Im, Mu	6-beat	Gagok style	Verse 5
<Sangsabyeolgok>	Hwang, Tae, Joong, Im, Mam	5-beat	Four-note down	Verse 12
<Gwunjuga>	Hwang, Tae, Joong, Im, Mam	Free rhythm	Four-note up	Verse 10
<Suyangsanga>	Hwang, Tae, Joong, Im, Mu	6-beat	Four-note up	Verse 6
<Cheosaga>	Hwang, Tae, Joong, Im, Mu	5-beat	Four-note down	Verse 8
<Maehwaga>	Hwang, Tae, Joong, Im, Mam	6-beat	Four-note up	Verse 10

12가사에 출현하는 음들을 나열해보면 대부분의 노래가 황-태-중-임-남(무)의 음계를 바탕으로 한다. 국악은 선법(mode)으로 악곡의 계통과 특징을 설명하는데, 출현하는 음의 간격뿐 아니라 각 음정의 진행·시김새 등에 의해 평조(平調, sol 선법)나 계면조(界面調, la 선법) 등으로 결정된다. 12가사는 황-태-중-임-남 또는 황-태-중-임-무의 진행이 평조나 계면조로 구별되지 않고, 두 개의 선법적 특징이 한 악곡에 섞여서 나타난다. 따라서 악곡별로 선법을 규정하지 않되, 나타나는 시김새를 음 조직에 맞게 요성하거나 퇴성하며 불러야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가창하게 된다. 장단은 <상사별곡>, <처사가>, <양양가>는 5박 장단, <권주가>가 무장단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6박 장단으로 노래한다. 종지 또한 <길군악>을 제외한 모든 악곡이 4도 하행 또는 4도 상행하는 종지의 형태를 가진다. 악곡의 짜임새는 4절에서 12절까지 절(verse) 또는 마루로 표기되어 나뉘어 있다.

위와 같은 12가사의 음악적 특징은 음영과 가창으로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 음영의 단계에서는 장단에 맞추어 노랫말을 읽고, 중심음의 단순한 가락으로 읊조리는 활동을 한다. 12가사는 모든 악곡이 황-중-임의 중심음을 가지고 있으며 장단은 단순하다. 이러한 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말붙임새에 맞게 음영하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고 시가 음악이 되는 과정을 체득하게 된다. 이후 가창에서는 정확한 가락을 익히고,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도록 한다. 이때 시김새를 살리고 종지를 파악하며 부르면 가창가사로서의 향유방식을 모두 사용한 것이며, 가사가 창작되고 분화된 어법 그대로 교수·학습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12가사의 교수·학습 방안

가사를 음악과에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적합한 학년과 내용 체계에 맞게 학습 요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가사는 대부분 5박 또는 6박의 단조로운 장단에 황-중-임의 골격음을 가진 노래이기 때문에 제재곡의 수준에 따라 초·중·고 모든 학령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랫말이 현대어가 아니고, 주제 또한 초·중학교 학령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양한 시김새를 살려 부르기 위해서는 가곡이나 잡가와 같은 수준의 난이도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방법을 전개하겠다.

학습의 방법은 학습 요소를 정한 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 악곡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수준

과 학습 상황에 맞게 이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가사의 학습 요소 선정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가사의 향유방식은 표현 영역과 감상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고등학교 『음악』 교과의 감상·표현 영역에서 내용 요소, 기능,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Learning content of twelve Gasa based on the 2015 revise music curriculum in Korea

Areas	Appreciation	Expression
Contents	• Music elements and concepts •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music	• Construction of music • Poster and playing technique
Skills	• Identifying • Expressing • Expaining	• Singing
Achievement standards	[12mus02-01] Express high school-level music elements and concepts differently. [12mus02-03] Listening to music from various eras and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12mus01-01] Sing or play instruments in a unique wa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12mus01-05] Proper posture, breathing, and pronunciation are used to sing or express how to play according to the instrument.

감상 영역의 음악활동은 음악적 이해와 감성의 폭을 넓히고, 음악 요소를 파악하여 악곡을 이해하게 한다. 그러므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기 전에 감상하게 하면 제재곡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상 영역의 내용 요소는 음악 요소와 개념, 역사·문화적 배경이다. 이때 음악 요소와 개념은 ‘말붙임새’, ‘장단’, ‘음계’, ‘시김새’, ‘종지’ 등과 관련지을 수 있다. 앞절에서 분석한 12가사의 장단과 음계, 시김새, 종지 등에 관한 이해는 악곡의 음악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게 할 것이다. 또 악곡은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악곡의 배경은 노랫말과 관련이 있는데, 노랫말에 담긴 감정과 사상을 파악하는 활동은 그 음악이 속한 문화적 배경인 문학과 연계하여 설명하는데 중요한 학습활동이다.

표현 영역의 활동은 악곡이 가진 아름다움 및 가치를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

하게 한다.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내용 요소는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이다. 이는 12가사의 노랫말과 곡조와 관련된다. 노랫말에는 당시의 사회상을 바탕으로 한 주제가 있고, 이러한 주제는 운율적 음보로 만들어져 있다. 노랫말에서 운율을 이루는 형태 즉 음절과 울격이 말붙임새와 장단을 어떻게 이루는지와 관련지으면, 언어적 표현과 음악적 표현과의 연관성을 알게 된다. 곡조는 감상 영역의 학습활동에서 다른 음악 요소를 개성 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때 자세와 연주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 요소이다. 노래를 부르는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사의 향유방식에 근거한 학습단계에 따라 학습 요소에 맞는 학습활동과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Learning elements and learning activities by Gasa

Step	Metrical reading	Reciting	Singing
Areas	• Appreciation	• Expression	
Learning elements	• Music elements and concepts •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music	• Construction of music • Poster and playing technique	
Learning activities	- Listening with the <i>Jangdan</i> with your knees-hitting - Listening while drawing a <i>Garakseonbo</i> - Read the lyrics using the four-syllable rhythm - Explain history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understand themes	- Learn the right posture and breathing - Reciting to <i>Jangdan</i> - Reciting in keytones (skeletal notes)	- Singing in tune to the <i>Jangdan</i> of the <i>Janggu</i> - Sing in a unique wa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iece of music

먼저 ‘율독’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요소는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이다. 관련된 학습활동은 무릎 장단치며 감상하기, 가락선보 그리며 감상하기, 4음보의 노랫말 읽기,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여 설명하기 등을 할 수 있다. ‘음영’ 단계에는 음악의 구성 및 자세와 연주법이 학습 요소이며, 바른 자세와 호흡 익히기, 장단에 맞추어 음영하기, 중심음으로 음영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가창’ 단계에서는 음영하기를 확장시켜 장구 장단에 맞추어 정확한 가락으로 노래 부르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를 할 수 있다.

2. 가사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실제

본 절에서는 <Table 6>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출한 학습 요소가 교수·학습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악곡 <백구사>를 활용한 학습활동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12가사의 각 절은 정확한 유절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한 절만 학습함으로 악곡 전체를 익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가사가 전통적으로 부분창하여 왔음은 다수의 연구(Yim, 2004; Kim, 2006a)에서 밝혔으므로 현장에서는 악곡 전체를 학습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백구사>는 한배가 느린 악곡(J = 46)으로 전체 8절을 노래하면 약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본 절에서는 <백구사> 1절의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전개하겠다. 백구는 갈매기를 말하는데, 전통 성악곡에 자주 나타나는 소재이다. <백구사>의 노랫말에는 갈매기를 보며 강호에 묻혀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살고자 하는 작자의 마음이 담겨있다. 교수·학습의 실재는 가사의 향유방식에 근거하여 ‘울독하기’ - ‘음영하기’ - ‘가창하기’의 순으로 전개하겠다.

1) 울독하기

울독하기에서는 ‘무릎 장단치며 감상하기’, ‘가락선보 그리며 감상하기’, ‘4음보로 노랫말 읽기’,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1) 무릎 장단치며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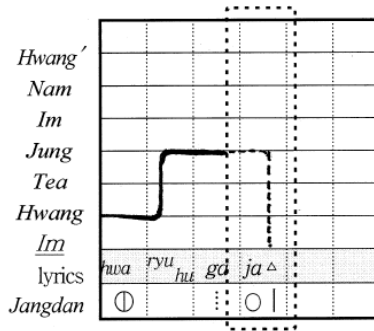
울독의 기본은 율격 즉 반복되는 언어의 리듬감을 익히는 것이다. 시가의 율격은 음악의 장단과 관련되는데, <백구사>는 1절이 총 9장단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악곡을 감상하며 한배를 파악하고 장단을 구별하는 활동을 통해 익힐 수 있다. 아래 [Figure 1]을 참고하여 구음으로 장구 장단을 익히고, 양손으로 무릎장단을 치며 감상하도록 한다.

<i>Jangdan</i>	⊙			○		○
oral sound	<i>Deong</i>		<i>deoreo reoreo</i>	<i>kung</i>	<i>deok</i>	<i>kung</i>

[Figure 1] *Jangdan* of <Baekgusa>

(2) 가락선보 그리며 감상하기

<백구사>는 황-태-중-임-남의 출현음이 나타나는 악곡이고 시조와 같이 4도 하행하는 종지가 특징이다. 음악을 듣고 곡조의 정확한 음진행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손가락으로 가락선을 따라 그려보면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Figure 2]의 예시와 같이 종지를 듣고 가락선보 그리기 활동을 하여 4도 위 仲(중, *Jung*)에서 본음 黃(황, *Hwang*)으로 툇 떨어지는 종지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Figure 2] Example of drawing cadenza activity of <Baekgusa> verse 1

(3) 4음보로 노랫말 읽기

학생들은 악곡을 감상하며 4음보의 노랫말 구조를 파악하고, 율격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이후 불임새에 맞게 노랫말을 읽으며 뜻을 파악하게 한다. 노랫말은 1절만 제시할 수도 있고, 전체를 제시할 수도 있다.

<백구사>의 1절 노랫말과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백구야 펄펄) 나지마라 너잡을내 아니로다 성상(聖上)¹⁾이 버리시니 너를좇아 예왔노라 오류춘광(五柳春光)²⁾ 경(景) 좋은데 백마금편(白馬金鞭)³⁾ 화류(花柳)⁴⁾가자

(백구야 펄펄) 날지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로다 임금이 버리니시 너를 따라 여기왔노라 오류춘 봄빛 경치 좋은 곳에 백마 타고 금채찍 들고 꽃놀이 가자

1) 성상(聖上): 임금

2) 오류춘광(五柳春光):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 도연명(365~ 427)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 집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것에서 유래함.

3) 백마금편(白馬金鞭): 흰 말과 금색 채찍. 호사스러운 모양

4) 화류(花柳): 꽃놀이

위 노랫말을 읊독하기 위해 행과 음보를 구분해 보면, 1절의 노랫말은 3행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행은 4음보로 되어 있다. 행과 음보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백구야 펄펄) / 나지마라 / 너잡을내 / 아니로다 //

성상이 / 버리시니 / 너를 좇아 / 예왔노라 //

오류춘광 / 경 좋은데 / 백마금편 / 화류가자 //

‘/’ 표는 발음을 끊어 읽는 표시이고, ‘//’는 행을 구분하여 쉬어 읽는 표시이다. ‘/’로 구분하는 음보 4개가 모여 ‘//’의 행이 된다. 이 곡은 1행 첫 구에 해당하는 ‘백구야 펄펄’은 생략하여 ‘나지마라’부터 노래 부른다.

이 단계에서는 노랫말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보다는 율격의 리듬감을 익히는 것에 주목하여 학습활동한다. 각 음보는 같은 시간적 길이로 읽어야 하므로 음수를 이탈했을 때 생기는 음보 간 리듬의 변화를 느끼도록 한다.

(4)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하기

음악은 당시의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여 만든다. 12가사에 담긴 주제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악곡의 배경을 파악하는 학습활동은 학생 중심 활동, 주제 중심 탐구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아래 <자료 2>와 <자료 3>은 이러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자료의 예시이다. 먼저,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러한 시를 노래한 이유에 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료 2>

가사는 가사체로 된 산문시를 노래하는 것으로, 조선중기 이후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도 만드기와 만들어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노랫말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중기는 성리학 이론이 체계화 되고 유교적 사상에 의해 사회의 질서가 자리를 잡은 시대입니다. 사대부들은 유학적 이념에 근거하여 강과 호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학문을 익히는 유유 자적한 삶을 동경하였고, 그러한 염원을 시와 노래로 표현하였습니다. <백구사>는 흰 갈매기에 투영한 선비의 노래입니다. 임금으로부터 버림받은 작자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자연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여기가 신선 세계이고 별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 안에서는 문신들 간의 권력 싸움이 끊이지 않아, 혼란스럽지 않은 자연 속에 있는 삶이 좋다고 표현하지만, 임금을 떠난 삶이 마냥 기쁘지만 않아서 <백구사>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문화적 상황을 탐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화적 배경에 관한 이해는 아래와 같이 문학과 관련지을 수 있다.

<자료 3>

12가사는 긴 노랫말을 정해진 곡조에 얹어 부르는 12곡의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는 4음보의 운율을 바탕으로 지어졌고, 여러 개의 절이 간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노랫말을 음보에 맞추어 읽어보면 매끄러운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랫말의 내용은 솔직하고 서정성이 특징입니다.

<백구사>는 간결하고 소박한 언어로 자연을 예찬하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의 노래는 오래전부터 시와 노래 등 문학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백구사>의 노랫말은 가집 『청구영언(1728)』과 『가곡원류(1876)』에 실려있습니다. 이러한 가집은 선비들의 풍류를 담은 노래를 묶은 것이기 때문에, <백구사>가 단순히 자연만 예찬한다기보다는 임금에게서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같이 다양한 자료와 학습활동을 통하여 12가사의 노랫말에 담긴 주제를 이해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2) 음영하기

음영은 가창의 전 단계로서 악보를 보고 음악의 요소에 맞추어 읊조리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요소 ‘장단’, ‘음계’와 연계하여 ‘바른 자세와 호흡 익히기’, ‘장단에 맞추어 음영하기’, ‘중심음으로 음영하기’ 활동을 제시하겠다.

(1) 바른 자세와 호흡 익히기

노래 부르기의 기본 활동은 자세, 호흡, 발음, 발성과 관련이 있다. 자세와 호흡, 발음과 발성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래를 부를 때는 가슴을 펴고 편안한 자세로, 단전호흡을 악곡의 끝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단전호흡에 의한 발성은 소리를 곧고 길게 뽑아내어 힘있게 전달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호흡은 윗배를 사용하는 복식호흡과는 다르다. 단전호흡과 자연스러운 발성은 노래를 위한 기본 요소이지만 악곡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말 노래는 자음 중심이기 때문

에 구강이나 인두강의 공명을 많이 활용하여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또 어단성장(語短聲長: to keep the lyrics short and make the sound longer)으로 발음은 짧게 붙이고 소리를 길게 내어 노래한다. 이것은 호흡과도 연관된 것이다. 우리말의 지어진 모습에 맞게 발성하고 발음하되, 자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며 정확하게 소리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와 호흡, 발성이 필수적이다.

(2) 장단에 맞추어 음영하기

음영의 가장 기본은 율격에 따른 리듬감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백구사>는 6박 장단의 악곡이므로, 장단에 맞게 노랫말을 읊조리는 활동을 한다.

<i>hwa</i>	<i>ba</i>	<i>gyeongjo</i>	<i>o</i>	<i>neo</i> <i>reul</i>	<i>sea</i> <i>ong</i>	<i>ne</i>	<i>neo</i>	<i>na</i>	①	<i>Baekgusa</i>
<i>ryu</i> <i>hu</i>	<i>u</i> <i>ug</i>		<i>hu</i>	<i>jo</i> <i>hu</i>	<i>sa</i> <i>ng</i>	<i>a</i>	<i>ja</i> <i>a</i>			
<i>ga</i>	<i>ma</i>		<i>ryu</i>	<i>cha</i>	<i>i</i>	<i>ni</i> <i>hi</i>		<i>ji</i> <i>hi</i>		
<i>ja</i>	<i>geum</i>	<i>hu</i> <i>n</i>	<i>chun</i>	<i>ye</i> <i>wa at</i>	<i>ba</i> <i>ri</i>	<i>ro</i>	<i>bu</i> <i>hu</i>	<i>ma</i>	○	
				<i>no</i>	<i>si</i>					
	<i>pye</i> <i>on</i>	<i>du</i> <i>u-e</i>	<i>gwa</i> <i>ng</i>	<i>ra</i>	<i>ni</i>	<i>da</i>	<i>ul</i>	<i>ra</i>	○	

[Figure 3] Jeonggan notation to Jangdan of <Baekgusa>(National Gugak Center, 1982, p. 11)

[Figure 3] 정간보를 활용하여 말붙임새에 맞게 노랫말을 읽고, 장구 장단에 맞추어 읊조리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말붙임새에 맞게 음영을 해보면 가사의 모든 노랫말이 음절 단위로 장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음절 단위는 ‘너잡을내’이지만 장단 단위로는 ‘너잡을’로 붙어 있으며, ‘너를좃아’와 ‘예왔노라’는 두 장단이 아니라 한 장단에 노랫말이 붙어 있다. 이렇듯 한 곡조 안에서 음절 또는 음수의 이탈로 생기는 음악의 변화는 가사의 독특한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음영을 하게 되면 우리말을 노래 부를 때 생기는 발음의 변화를 파악하게 된다. 즉 ‘너 잡을’은 ‘너 자 ㅏ 부 ㅎ ㄹ(*nea ja a bu hu ul*)’, ‘백마’는 ‘바 ㅜ ㅓ 마’와 같이 풀어내고, 매개자음 ‘ㅎ(*hu*)’ 등이 첨가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바리시니’를 ‘바리시니(*barisini*)’로 발음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일곱째 장단의 ‘경조은데’에서 초성 발음 ‘경조(*gyeongjo*)’는 짧게 붙여 정확하게 발음하고 뒷소리를 길게 내는 것이 어단

성장인데, 이러한 묘미를 살려 읊조릴 수 있어야 한다.

(3) 중심으로 음영하기

문헌에서는 음영에 사용하는 음높이에 관하여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문
학계에도 음영의 고저율에 관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12가사의 형성에 영향을
준 가곡이나 시조가 황-중-임의 골격음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12가사의 모든 악곡이
같은 중심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음영할 수 있다. 본래 악보에서도 장
식음을 제외하고 음높이만 살펴보면 황-중-임을 사용한 단순한 음진행이다. 따라서
정확한 음높이로 노래하는 가창 전에 중심음 황-중-임을 바탕으로 6박 장단에 맞추어
노랫말을 읊조리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먼저, 아래 [Figure 4]을 참고하여 중심음의 높이를 익히도록 한다.



[Figure 4] Keytones and scale of <Baekgusa>

음높이를 익히고 나면 아래 [Figure 5]와 같이 정간보를 바탕으로 말붙임새에 맞게
음영을 한다. 음높이에 따른 음영을 하면, 이 악곡이 황-중-임의 음진행이 반복된다는
것을 파악한다. 이것이 가사 음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pitch/lyrics															
Hwang	hwa	Jung	ba	Hwang	gyeongjo	Jung	o	Nam-	neo	Im	sea	Jung	ne	Jung	neo
Jung	ryu		u	Jung			hu	Im	jo	Nam	sa	Hwang	a	Im	ja
Jung	ga	Jung	ma			Jung	ryu	Jung	cha	-	i	-	ni		Jung
Hwang	ja	Im	geum	Im	hu	Im	chun	Im	ye	-	ba	Jung	ro	Im	bu
△					n			Jung-	wa		ri				hu
								Hwang'	no	Hwang'	si				
								Jung	ra	Nam	ni	Hwang	da	Hwang'	ul
		Hwang	pye	Jung	du	Hwang	gwa							Hwang	ra
		on	on	e	e	ng	ng								

[Figure 5] Jeonggan notation to the keytones of <Baekgusa>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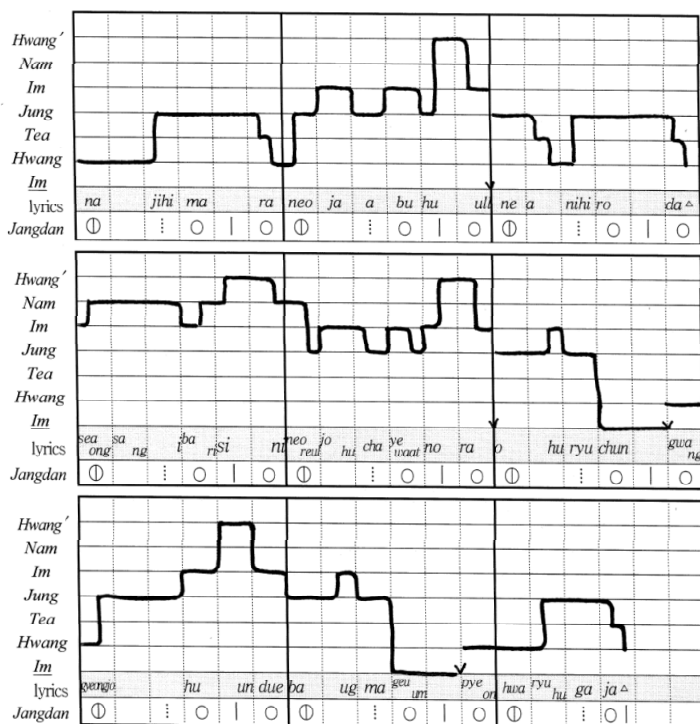
5) <백구사> 정간보에서 음높이에 따른 올명의 구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黃=Hwang / 𪛗=Hwang' (둘째 장단의 여섯째 박, 넷째 장단의 다섯째 박, 다섯째 장단의 다섯째 박)
- 林=Im / 𪛗=Im (여섯째 장단의 넷째 박, 여덟째 장단의 넷째 박)

음영할 때 주의할 점은 ‘너를쫓아 예왔노라’와 같이 음 변화가 많은 부분이나, 황-중-임의 중심음 외 넷째 장단과 다섯째 장단에 출현하는 ‘남(南)’이 나오는 부분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더 단순하게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음영하기에서는 정확한 가락을 익히기보다는 장단에 맞게 반복되는 음높이로 윽조리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음영이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인 가창을 쉽게 할 수 있다.

3) 가창하기

가창은 악곡의 정확한 가락을 익히고,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활동이다. 음영 후 가창을 해보면, 황-중-임의 중심음이 장단이라는 음의 길이를 만나 다채로운 가락으로 만들어지고, 음의 진행에 맞게 시김새를 곁들이면서 시가 비로소 음악이 되어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느낌을 살려 창의적인 표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습활동은 ‘장구 장단에 맞추어 정확한 가락으로 노래 부르기’와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이다.



[Figure 6] Garakseonbo: Score of <Baekg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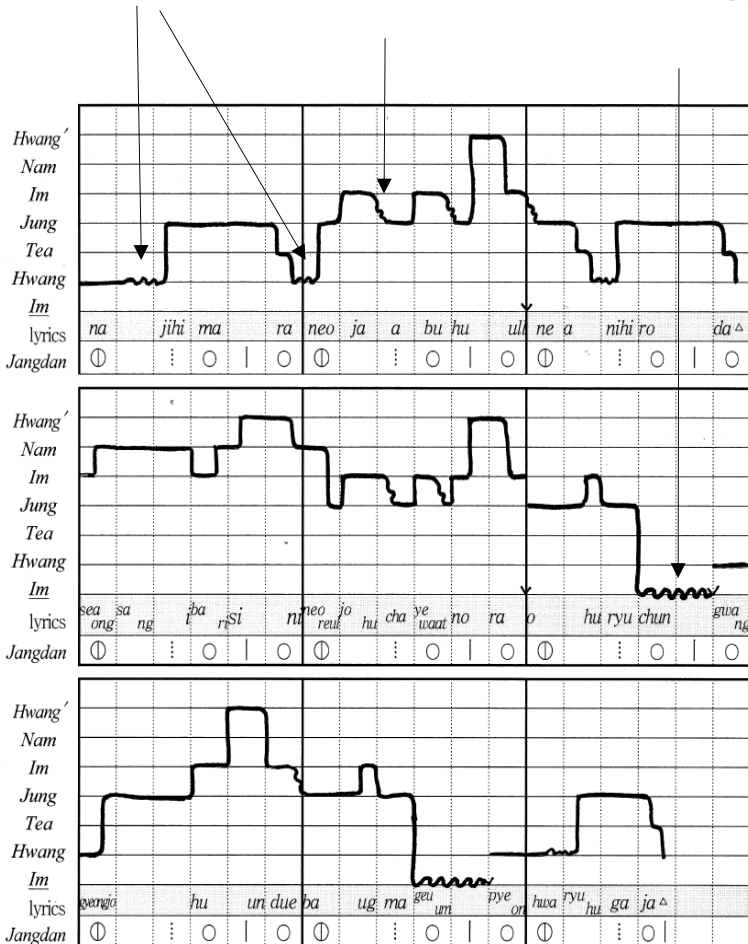
(1) 장구 장단에 맞추어 정확한 가락으로 노래 부르기

<백구사> 8절 전체는 황-태-중-임-남의 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절에서는 주로 황-중-임의 중심음만 사용하고, 넷째 장단과 다섯째 장단에만 남려(南)음이 나온다. 악곡의 가락을 파악하도록 가락선보를 활용하여 울명으로 부르기를 반복하고, 노랫말을 붙여 불러본다. <백구사>는 한배가 느린 악곡이므로 한 장단을 한 호흡으로 노래하기 힘들어서 숨표를 표시하여 지도한다.

*Hwang: shake the sound at the end of the note slightly

*Im → Jung: shake the sound as pull down

*Im: shake the sound deeply



[Figure 7] Garakseonbo: Score with Sigimsae of <Baekgusa>

(2)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부르는 활동에서는 썸여림과 시김새를 살려 부르도록 한다. <백구사>의 노랫말을 보면,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지만 벼슬에서 쫓겨난 작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살려 썸여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사는 한 악곡 안에 평조와 계면조의 느낌이 같이 나타나는데, 특히 시김새가 붙는 위치와 모양에서 그러한 느낌을 발견한다. 또 전승 계보나 부르는 창자에 의해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므로, 시김새가 붙는 수준은 학생과 상황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백구사>는 요성(Yoseong: vibratos)과 퇴성(Toeseong: descending tones)을 살려 노래 불러야 한다. 요성은 주로 본음인 ‘황(黃, Hwang)’에 나타난다. ‘황’을 길게 부르는 부분에서는 노랫말의 끝을 잘게 떨어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나지마라’에서 ‘나’의 끝과 ‘라’의 끝은 잘게 떼인다. ‘임(林, Im)’에서 ‘중(仲, Jung)’으로 진행되는 부분 즉 ‘너자불내’에서 ‘잡’과 ‘불’은 퇴요성한다. 반면 옥타브 아래 ‘임(林=Im)’이 나오는 ‘오류춘광’의 ‘춘’과 ‘백마금편’의 ‘금’은 격하게 떨어져서 표현한다.

IV. 결론

가창하는 가사는 12곡이 남아있는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본 연구는 12가사를 향유하던 방식에 근거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의 유래와 향유방식에 관한 문헌에 의하면 본래 가사는 율독, 음영, 가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율독은 노랫말의 율격 리듬에 의존하여 읽는 방식, 음영은 단순한 장단과 음을 반복하여 읊는 방식, 가창은 곡조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사가 만들어진 본래의 방식이며 향유하던 그대로 이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학습활동 하면 문학인 시가 음악인 노래가 되어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12가사를 제재곡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율독-음영-가창의 방식과 단계에 근거하여 구체화할 수 있겠다.

둘째, 12가사의 노랫말의 구조와 음악적 구조를 고찰해보았다. 노랫말의 문체는 가사체, 고려가요체 또는 잡가체, 한문현토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주제는 주로 군자의 풍도와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었다. 음악적으로는 악곡별 음계, 장단, 종지, 짜임새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악곡이 황-중-임의 골격음을 가지고, 5박 또는 6박 장단으로 노래하며 4도 하행 또는 상행으로 종지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노랫말

의 특성과 관련된 문학적 특징은 악곡을 율독하고 음영할 때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음악적 특징은 음영과 가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율독-음영-가창의 단계별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율독 단계에서 학습 요소는 음악 요소 및 개념,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으며, 음영과 가창 단계에서는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학습활동에서 율독은 무릎장단 치며 감상하기, 가락선보 그리며 감상하기, 4음보로 노랫말 읽기,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하기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음영은 바른 자세와 호흡 익히기, 장단에 맞추어 음영하기, 중심음으로 음영하기를 적용할 수 있다. 가창 단계에서는 장구 장단에 맞추어 정확한 가락으로 노래 부르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한다.

넷째, 이러한 활동을 구체적인 예시 악곡 <백구사>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가사는 시조·가곡과 더불어 정가의 갈래에 속하는 전통 성악곡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며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제재곡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어를 바탕으로 노래 부르는 활동은 노랫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듬에 근거하여 잘 읽고 읊조리기만 해도 가창이 수월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가 12가사 교육이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ek, B. D., Choe, H., Mun, J. H., Hong, G. S., & Kim, E. H. (2001). *Music textbook for high school*. Seoul: Chunjaetext.
- Cha, Y. S. (2009). *A study on a teaching-learning method for considering genre's characteristics of 'Gasa': Focused on 『Gwandong Byeolgok』*. Master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Choe, E. S., Kim, M. S., Kwon, H. G., Shin, Y. G., Kang, S. Y., An, I. K., & Yang, I. K. (2018). *Music textbook for middle school 2*. Seoul: Chunjaetext.
- Choi, Y. Y. (2006). An analysis of <Suyangsanga> in twelve Gasa: Focusing on the use of Seodo vocalism. *Korean Traditional Musicology*, 7, 283-303.
- Go, C. S., & Hong, J. K. (2001). *Music textbook for high school*. Seoul: Sekwang Music Publishing Company.

- Go, Y. S., Lee, Y. J., Lee, S. C., Kim, H. J., Kim, B. R., Choi, S. G., Gil, H. S., & Lee, E. S. (2001). *Music textbook for middle school 2*. Seoul: Gyohaksa.
- Han, Y. Y. (2012). An analysis of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nd teacher's manual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1), 229-265.
- Im, J. C. (2010). A study on the principle of Sijo composition & its scansion. *Collections of Scholars in The Study of Sijo*, 33, 9-32.
- Jang, S. H. (1973).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Gasa. *Seoul University Journal*, 18, 3-28.
- Jeong, M. (1988). *The collection of poems of successive generations in Korea*. Seoul: Asia Culture History.
- Jeong, S. M., Cheon, G. S., & Kim, Y. H. (1995). *Music textbook for high school*. Seoul: Bojinjae.
- Jeong, Y. T., & Heo, H. B. (2001). *Music textbook for high school*. Seoul: Gyohaksa.
- Kang, J. E. (2012). *A study on teaching plans for singing Gagok(long lyric song), Gasa(narrative song), and Sijo(short lyric song), applying Bruner's theory of representation*. Master thesis, Kookmin University.
- Kim, C. G. (2006a). *The 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welve Gasa and their characteristics as a musical genre*.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C. K. (2018). *Twelve Gasa*. Seoul: Minsogwon.
- Kim, E. H. (2006b). A confirmatory research on Saengjogamguga's writer and the anti-Japanese movement of the writer's family. *Journal of Bangyo Language and Literature*, 20, 181-217.
- Kim, H. J. (2012). A study on instructional methods of 'Koryeo Gayo'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3), 47-84.
- Kim, J. S., & Lee, D. H. (1995). *Music textbook for high school*. Seoul: Sekwang Music Publishing Company.
- Kim, M. J. (2000). A study on rhythm of Korean poems and songs for poetry-recitation. *Korean Studies*, 13, 267-288.
- Kim, S. H. (2005). *A study on singing class for appreciative learning of Gagok, Gasa, and Sijo of secondary education*.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C. W. (2003). A study of contents in Sijo recitation. *The Korean Essays on Sijo*

- Literayry Science*, 19, 5-5.
- _____ (2010). The origin and appearance of Eum Song. *The Korean Essays on Sijo Literayry Science*, 33, 33-50.
- Lee, H. S. (1966). *Gasa & theory of Gasa*.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K. E. (2006). A study on Chongganbo for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public school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1, 119-144.
- Lee, L. S. (2014). *History of Korean poetry and literature*. Seoul: Bogosa.
- Lee, N. G. (1977). *Theory of Gasa*. Seoul: Iljisa.
- Lim, B. O. (2013). A study on the key and mode of the Hwanggyesa. *Journal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36, 129-143.
- _____ (2014a). The study on the key and mode of Maehwaga. *Journal of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30, 195-209.
- _____ (2014b). A study on the key and mode of Cheosaga and Yangyangga. *Journal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48, 3-28.
- _____ (2015). A study on the key and mode of the Baekgusa. *Journal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40, 115-142.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oon, H. (1997). Study on vocal technique of the present Kagok and Sijo-Focused on vibrato. *Studies in Korean Music*, 25, 153-213.
- Moon, H., & Kim, H. L. (2008).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41 Gasa*. Seoul: Minsogwon.
- National Gugak Center (1982). *Korean traditional music collection 10*. Seoul: National Gugak Center.
- _____ (2018). *Classical vocal music of Korea reinterpreted*. Seoul: National Gugak Center.
- National Hangeul Museum (2008). *Aesthetic enjoyment of Hangeul songs: Sijo and Gasa*. Seoul: National Hangeul Museum.
- _____ (2017). *Scenery of moments in life: Hangeul lyrics from Cheonggu yeongen: Special exhibition*. Seoul: National Hangeul Museum.
- Park, J. M. (2013). A study on Gyeonggi folk song Sigimsae for elementar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2), 59-89.

- Ryoo, H. C. (2016). The enjoyment of way on Si-jo and Ga-sa in Joseon dynasty. *Collections of Scholars in The Study of Sijo*, 44, 165-195.
- Sin, G. B., & Kang, D. W. (1995). *Music textbook for high school*. Seoul: Sekwang Music Publishing Company.
- Sung, M. K. (2002). A study on the musical environment and transmitted Gasa sung in 18th and 19th centuries. *Korean Classical Poetry Studies*, 11, 47-74.
- Yim, J. H. (2011). *A study on the approaches to teaching Sijo • Gagok • Gasa in stages*.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Yim, J. W. (2004). The singing tradition of Gasa and possibility of partial singing. *Korean Classical Poetry Studies*, 16, 280-315.
- _____ (2007). *A study on the origin of twelve Gasa*. Doctoral disse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13). *Gasa literature and music*. Seoul: Bogosa.
- Yoon, K. M., & Moon, J. (2001). *Music textbook for high school*. Seoul: Modern Music Publishing Company.
- Yoon, Y. A. (2011). *Research of appreciation field to improve efficiency of Korean music education: Focused on the high school*. Doctoral disseration, Dankook University.
- You, S. M. (2018). A study on instructional contents for Korean music cre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Jeongak piec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85-105.